

【 해외금융 뉴스: 유럽 】

아이슬란드 화산재, 보험회사 영향 크지 않아

□ 아이슬란드의 화산재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서유럽 및 동유럽의 공항들이 폐쇄되면서 항공사의 피해규모는 커져가고 있지만 이로 인한 보험회사의 손실은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됨.

- 이는 항공사들이 보편적으로 항공기 추락으로 인한 물적 손실과 인적 손실 보험만을 가입하고 항공운행 취소 관련 보험은 가입하지 않기 때문임.
- 항공 관련 재보험인수의 비중이 높은 Hannover Re는 공항업무 폐쇄로 인한 기타 손실 관련 보험가입도 거의 없기 때문에 항공사의 손실은 보험회사의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.
- Swiss Re는 운송관련 보험은 화물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배상되며, 공장 및 건설현장에 대한 화물 운송의 지연은 조건부업무지연(contingent business interruption)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우편·화물 배달의 지연으로 인한 보험회사의 손실도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됨.
- Munich Re는 업무차질로 인한 배상책임 요청은 현재까지 보고된 바가 많지 않으나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, 공항폐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함.

□ 금번 유럽의 공항 폐쇄로 인한 보험회사의 손실은 주로 여행자보험의 분야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임.

- 여행자보험의 지급규모는 발생지역이 넓기 때문에 911테러 이후 최대가 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으나, 여행객의 약 30%만이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손실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임.
- 여행자보험업계는 화산재가 기상 관련 자연재해로 간주됨에 따라 항공비·숙소·식대 등의 비용으로 1인당 1,500달러, 1일당 150~250달러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며, 개별 특약에 따라 보상금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다고 밝힘.

(Guardian, 4/16, Mail online 4/16, The New York Times, 4/19)